



돼지 도체등급판정수수료 두당 300원 징수

- 1월 6일부터 전 도축장에서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양돈농가들의 재검토 건의에도 불구하고 당초 올 1월부터 징수하기로 입안예고 했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1월 6일부터 징수한다고 고시했다.

농림부가 이날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1두당 300원, 소는 1,600원으로 지난해 12월 6일 농림부가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고시·입안 예고했던 수수료보다는 돼지 80원, 소 400원 각각 축소된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하여 도체등급판정신청을 하는 출하자는 1월 6일부터 돼지 1두당 300원을 등급판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양돈분야의 경우 연간 약 45억원(1천5백만두 도축시)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돈장·시센터 방역관리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종돈장·정액등처리업 연간 4회 이상 정기검사 실시

앞으로 종축업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 점검에

서 일정 기간내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기간내 개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 1월 6일 가축방역 강화를 위한 일환책으로 종축업 등의 사육시설, 방역관리 등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내 개선토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기간내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지난해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종축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질병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량 종축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종돈업·종계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체에 대한 1차 방역관리실태점검을 실시했다.

1차 조사결과 종돈장의 경우 경기, 강원, 충남·북, 경남·북 종돈장 12곳 중 3곳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액등처리업체는 조사 대상 3곳 중 2곳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 농어민부채 금리 1.5% 경감 추진

농가의 부채를 줄여주기 위해 농민에게 대출된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영농자금 등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금리도 연 3%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금명간 농림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자경감 방안을 협의토록 권고기로 했다.

부채대책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 3%로 인하

농림부가 농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채대책 중장기 정책자금의 이율이 현행 상환기간에 따라 4.0~5.0%에서 연 3%로 인하되고, 연대보증 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도 현행 연 5%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약정당시의 상환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3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정책자금에 대한 농가의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양돈 불황속 돼지 사육두수 소폭 감소

12월 돼지두수 897만4천두 · 사육호수는 증가
2002년 12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지난 9월 사상최대의 사육두수를 기록했던 903만3천에 비해 0.7%(5만9천두) 감소한 897만4천두로 나타났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가축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897만4천두로 전분기 903만3천두에 비해 0.7%(5만9천두)가 감소한 반면, 전년 동기 872만두에 비해서는 2.9%(25만4천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모돈 두수는 95만5천두로 전분기 95만6천두보다 0.1%(1천두)가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95만5천두와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사육 농가수는 사상 최대의 사육두수를 기록했던 9월보다 오히려 3.0%(510호)가 증가한 반면 전년동기보다는 10.7%(2천110호) 감소한 1만 7,440호로 집계됐다. 호당 사육두수는 514.7두이다.

국회, 농어민부채 상환기간 연장 추진

4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지난 1월 8일 자민련 원철희 의원,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철희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해 자연재해와 농수산물의 수입 확대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에 일부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 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을 개정기로 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특별히 상환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이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을 종전 지원받은 날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 것을 4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토록 했다.

저돈가속 배합사료값 최고 2.8% 인상

농협 계외, 12월 16일부터 2.6~2.8% 인상

예년과 달리 사상 최대의 사육두수와 수출부위 재고누적 등의 영향으로 12월 들어서도 돈가가 2,300원대에서 맴돌고 있어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아랑곳없이 국내 배합사료 값이 2.6~2.8% 인상됐다.

업체별로 보면 지난 16일 대한제당이 양돈사료 2.68%, 비육사료 3.2% 등으로 평균 2.73%를 올렸다. 또한 17일부터는 퓨리나 사료가 2.6%, CJ Feed 2.5%, 삼양사 2.68%, 18일에는 대상사료가 2.83% 각각 인상했다. 그러나 농협 계통구매 물량은 농협측의 반대로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축단협, 배합사료 값 인하지도 요청

-농림부 장관, 농협중앙회, 사료협회장에 서신 보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지난해 12월 30일 팔레스 호텔에서 최근 사료업체들의 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31일 농림부장관, 농협, 사료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단협은 공문에서 “최근 축산업계는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 확산과 우유 재고량의 급증, 닭고기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3년에는 경기둔화, 내수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악재 영향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여 사료업체와 양축농가간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사료가격 인하·지도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2년 성돈 평균가 17만7천원

전년 대비 1.4% 상승 - 지육가는 2,652원

2002년 성돈 및 자돈가격은 상반기 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약세 기조를 보여 성돈가격의 경우 연평균 17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1.4%, 자돈가격의 경우 연평균 5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7.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성돈의 경우 1월 18만8천에서 출발한 돈가는 6월 21만7천원으로 고가를 형성한 후 9월이후 13만7천으로 큰폭 하락해 12월 현재까지 하락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자돈은 6만원에서 출발한 돈가는 6월이 6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10월이 4만9천원으로 가장 낮아 12월까지 낮은 가격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편 전국 도매시장 돼지 지육가격 동향을 보면 비육돈 박피 기준으로 2002년 연평균 지육가는 전년 2,624원/kg보다 1.1% 증가한 2,652원/kg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돼지 사육규모 현 수준 유지할 듯

-본회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 51%가 '유지'

2003년도 양돈농가들의 사육의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회가 지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귀 농장은 2003년도에 돼지 사육규모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9명의 응답자가 참여한 가운데 절반 이상인 234명(51%)이 “2003년도에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5% 이상 확대” 21.1%(97명), “5% 미만 확대” 3.9%(18명)로 총 25%가 사육규모를 확대할

계획인 반면 “5% 미만 감축” 6.3%(29명), “5% 이상 감축” 4.1%(19명)로 총 10.4%가 사육규모를 감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폐업 계획”은 13.5%(62명)로 나타났다.

가축질병 혈청검사 요청시 수수료 징수

경기도, 돼지콜레라·오제스키 등 가축질병 51종 대상

경기도는 앞으로 가축질병 혈청검사시 신청자로부터 혈청검사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1월 1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및 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가축질병 혈청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경기도 수입증지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질병인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 등 20종을 비롯, 소 21종, 닭 10종, 그 밖의 가축 4종의 질병에 대해 혈청 검사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항생제 오남용 농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잔류위반농가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앞으로 항생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최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육중 유해성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잔류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국내 도축장에 출하되었거

나, 출하하고자 하는 소·돼지·닭·오리 및 양도체를 대상으로 항생물질 20종, 합성항균제 19종, 호르몬 2종, 농약 32종으로 총 7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양돈업 등록제 도입’ 축산법개정 법률 공포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양돈업 등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시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축산법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올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공포된 축산법개정법률은 종전 부화업·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양돈업도 법 시행후 2년 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축산분뇨 공공수역 방류시 분리·저장시설 의무화”

올 6월 27일부터 축산업자가 축산분뇨를 공공수역에 방류할 경우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 등의 골자로 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이에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 6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축전염병 낙장 신고시 농가 사육시설 폐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공포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을 공포하고,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률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고를 늦게한 농장주에 대해서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률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명령을 잘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가축·원유 및 가축분뇨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의무화 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전국 다발 우려

최근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양돈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선 수의사에 따르면, 최근 흑한이 계속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기타 일부 지역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하고 있고, 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질병은 포유자돈의 수양성 설사를 특징으로 하고, 감염시에는 어린자돈에서 10~100%가 폐사하며, 모돈에는 무유증과 저유증, 유방염을 일으켜 큰 피해를 입힌다.

이 질병은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고, 급성 발병시 인공감염이 효과적이다. 양돈농가들은 외부인과 출입차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을 하는 것이 감염을 막는 지름길이다.

2002년 종돈수입 전년 대비 10% 감소

버크셔·랜드레이스 종 증가

지난 한해동안 국내에 수입된 종돈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1,274두로 나타났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2002년 한해 종돈수입두수는 전년 1,414두보다 10% 감소한 1,274두로 종돈수입 감소 속에 버크셔와 랜드레이스 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별로 보면 버크셔가 지난해 89두가 수입되어 전년 대비 48.3%(29두)가 증가하고, 랜드레이스는 326두가 수입되어 전년 대비 2.8%(9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

양돈·낙농 등 품목별 SW활용 등 교육

농림부는 지난 1월 15일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도농간, 산업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2003년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1,150여개의 농업관련기관·대학에서 시행되며, 컴퓨터·인터넷활용과 농업정보활용, 농업용 소프트웨어 활용 등을 주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문의: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화교육과(031-299-8891, 8877)

육류소비량, 돼지고기는 늘고 쇠고기는 감소

2001년 돈육소비량 2.4% 증가

2001년도 1인당 1일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2002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1일 소비량 중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쇠고기의 경우 거의 매년 증가하여 오던 것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소비량의 경우 지난 1980년 17.3g, 1990년 32.3g, 2000년 45.2g, 2001년 46.3g(추정치)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으며, 닭고기도 2000년 27.7g에서 2001년 30.3g으로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쇠고기 소비량의 경우 거의 매년 증가하여 오던 것이 2001년도에는 22.2g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 7.8%로 오히려 '증가'

올 10월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내륙지방의 비육돈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은 7.8%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와 제주도는 항체 양성률 0%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10월 비육돈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7.8%로 지난해 12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할 당시에는 91.8%였던 항체율이 올 6월 10.5%로 큰폭으로 낮아진 후 9월에는 4.4%까지 낮아졌다가 10월에는 다시 7.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침, 돼지질병 예방효과 탁월

벌침이 돼지 등 가축의 질병 예방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월 10일 “벌침은 돼지나 젖소 등 가축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 발생률을 낮게 하고, 항생제 대체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 서석봉 박사팀은 지난해 9월부터 화순지역 돼지농가 2곳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갓 태어난 새끼 돼지에 벌침을 놓은 결과 위축된 발생률과 질병 발병률이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약품값이 절감되고 새끼를 낳은 어미돼지에서 발견되었던 고름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부반응 유전자 무력화한 복제 돼지 출생

돼지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거부반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무력화시킨 소형 돼지가 복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미국 미주리-컬럼비아대학의 생식생명공학 교수 랜덜 프래서 박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국제배아이전학회 회의에서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할 때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유전자를 가진 a-1, GGTA-1 두 당분자를 무력화시킨 복제 암돼지를 지난해 11월 18일 출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작년 돼지고기 수입량 급증

7만1천톤으로 전년대비 38% 증가

2002년 국내 돈육수입량이 전년 대비 37.8% 증가한 7만1,045톤(검역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5만1,548톤보다 37.8% 증가한 7만1,045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의 요인은 EU지역의 돼지고기 수입금지 해금 및 상반기 국내 돼지값 급등 등의 원인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동**